

신화의 바다에서 건진 '오늘'의 처용가

장편 연작시집 「처용단장」 펴낸 김춘수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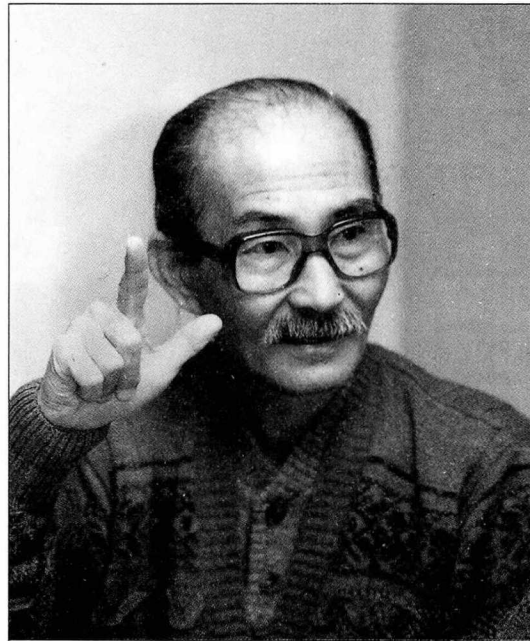
역신에게 아내를 빼앗긴 처용의 노래는 시인 김춘수의 목소리를 통해 역사에 희생된 개인의 울부짖음을 상징하는 노래로 바뀐다. 천년이 넘게 전해오는 이 고대설화는 한 노시인의 굴곡 많은 개인사를 담아내면서 시적인 생명력까지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생생한 현역으로 활동하는 몇 안되는 원로시인 중의 한사람으로, 예나 지금이나 쉽게 근접할 수 없는 특유의 긴장감을 자아내는 김춘수씨(70)가 근 25년에 걸친 오랜 작업 끝에 장편 연작시집 「處容斷章」(미학사)을 상재했다. 그의 詩歷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힘들게 씌어진 이 시집에는 고회를 맞은 그의 자전적 색채가 짙게 배어 있다. 그리고 이 시집에서 읽어낼 수 있는, '처용'으로 상징되는 그 '自傳'은 이제, 시인의 운신의 폭, 그 새삼스런 시인의 삶을 생각케 한다.

역사허무주의 흔적 짙은 자전적 내용

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 올해 5월까지 「현대시학」과 「현대문학」에 연재됐던 이 처용시편들은 김춘수씨의 여느 시편들에 비해 그의 역사관이 한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역사허무주의자' 혹은 '역사무정부주의자'로 스스로를 지칭하는 그는 "이제까지 경험했던 역사가 심어준 피해의식이 나를 그렇게 내몰았다"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20대 이후 80년대를 거쳐 바로 오늘에 이르는 그의 개인사에 각인된, 역사에 관한 한 어쩔 수 없는 국외자로 만들었던 세월들이 응집돼 있다. 일제말 히톤대학 시절 우연히 시국사건에 연루돼 겪어야 했던 고초와, 이후 해방을 맞을 때까지 징용을 피해 떠돌아다녔던 두더지 같은 생활, 해방에 이어 곧바로 찾아왔던 "어느 쪽에도 가담할 수 없었던" 이데올로기적 혼란, 6·25 피난시절, 그리고 대학중퇴라는 학력 때문에 십여년이나 감수해야 했던 시간강사시절 등이 그것이다.

막연하게 느껴지던 일종의 피해의식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는 결국 "60년대 이래의 나는 페시미스트"라고 단언하기에 이른다. 더욱이 5공때의 정치적 외도가 몰고온 뜻밖의 수난은 두고두고 상처로 남아 그를 더욱 도저한 허무주의자로 만들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변호해주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영문도 모른 채 역사에 순응해야 했던 이름없는 한 개인의 이력은 묻혀버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택했던" 정치적 행위 때문에 평생을 바쳐온 詩歷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그는



김춘수씨

역사의 선한 의지보다는 악한 의지의 위력을 절감케 된 것이다.

"나는 역사를 악으로 보게 되고, 그 運轉帶는 마침내 폭력으로 이어져 갔다. 나는 폭력·이데올로기·역사의 삼각관계를 도식화하게 되고, 차츰 역사허무주의로, 드디어는 역사 그것을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같은 그의 역사의식을 「처용단장」의 구조에 대입해보면, 처용설화에 등장하는 '역신'과 '처용'은 각각 '악으로서의 역사'와 '역사에 짓눌린 개인'을 상징한다. 시인 자신의 체험과 처용설화를 오버랩시키면서 드러내는 역사의 여러 단면들이 바로 이 시집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다.

'무의미시' 고수와 자기반성 함께 해

전해오는 대로 처용은 동해 용의 아들로 태어나 심해에서 유년기를 보내다가 인간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역신의 유혹에 아내와 함께 희생당하며 그 회한을 노래한다. 기승전결의 흐름에 따라 전4부로 구성된 이 시집은 유년기의 의식의 미분화 상태를 처용의 바다 밀생활로 묘사하면서 시작된다. 까마득한 어린시절의 추억들이 복원돼 있는 1부와 2부에는 고향인 통영(지금의 충무)에서 비롯되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갖가지 기억들과 사춘기 이전부터 그를 '어른아이'로 만들었던 주변풍경과 내면 세계가 어우러져 있다. 3부는 처용이 인간세계의 현실에 부딪치며 역사의 악을 체험하는, 바뀔까하면 시인의 청년기에서 현재에 이르는

처용설화에 등장하는 '역신'과 '처용'은 각각 '악으로서의 역사'와 '역사에 짓눌린 개인'을 상징한다. 시인 자신의 체험과 처용설화가 오버랩되는 이 시집에서, 역신에게 아내를 빼앗긴 처용의 노래는 한 노시인의 굴곡 많은 개인사를 상징하는 자전적 색채를 띤다.

행적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일본 요코하마 헌병대와 세다가야 경찰서에서의 囚人생활, 나중에 "개도 나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흔적없이 역사 속에 묻혀진 한 사건이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나이 겨우 스물둘, 너무 억울해서 / 나는 갖 태어난 별처럼 / 地上의 키 작은 아저씨 / 귀찮을 치며 치며 / 울었"던 이 체험이야말로 "역사는 진보한다"는 낙천적 역사관에서 그를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끝내 그는 그 기억을 버리지 않는다. 이 긴 연작시집의 대미(4부)에 이르러서도 시인과 역사와의 화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한편의 시집은 어느덧 노년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 개인의, 역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항변만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 한편에는 "나이 칠십이 되어서도 정리가 잘 안되는 관념과의 싸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 역사허무주의자에게도 "역사를 외면하면 역사는 복수한다"는 '지독한' 관념이 항상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 시집의 뒷부분에 쓸수록 "관념을 떨쳐 버리기 위한 그간의 노력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그의 허무주의가 결국 체념적인 것이 아닌 자기반성적이고 자기관찰적인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종종 자신이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결론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는 '무의미시'를 60년대 이래 고수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는 "내

가 관념 공포증 환자처럼 되어 관념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 무의미시를 30년이나 고집해왔지만 결국은 이처럼 허사였다"고 고백한다. 처용 연작시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 불가항력의 아이러니가 불러일으키는 "쓰디쓴 뒤틀림과 서글픔"을 보여 준다. "네 꿈을 흠쳐보지도 못하고, 나는 / 무정부주의자도 되지 못하고 / 모난 괄호 / 거기서는 그런대로 제법 / 소리도 질러 보고 / 부러지지 않는 / 달팽이뿔도 세워보고, // 歷史는 나를 비껴가라, / 아니 / 뱀돌처럼 단숨에 / 나를 으깨고 간다"는 그에게, 아직도 분명하게 정의내릴 수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모난 괄호', 즉 관념과의 갈등이야말로 그를 아직도 중요한 시인으로 존재하게 하는 비밀인 듯싶다.

시와 시론 병행하는 엄격한 시풍 여전

그를 중요한 시인으로 위치짓게 하는 또 다른 이유로 뒤를 잇는 많은 시인들에게 미친 하나의 '전형'으로서의 그의 시와 시론을 들 수 있다. 특히 지금은 중견시인이 된 60년대 시인들 중에는 그를 사숙해온 사람들이 적지 않을 뿐더러, 그만큼 철저히 자신의 시론을 견지하며 엄격한 詩作을 보여준 시인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당이나 청록파 등 바로 앞세대 시인들의 영향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와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집요한 관심으로 일구어낸 독특한 시풍은 우리 시사의 한 흐름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첫시집 「구름과 장미」(48년)를 내고 나서도 그러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처용단장」에서 벗어난 느낌을 그는 "그야말로 감개무량하다"고 한다. 그 세월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세웠던 구성과 의도를 끝까지 지키려 하다보니 "소리가 더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서 10여권의 시집과 7권의 시론집을 썼다. 이들 중 「시의 위상」은 「처용단장」과 함께 올해 출간된 시론집으로 가장 최근의 젊은 시인들의 작품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새삼스럽게 근황을 묻지 않아도, 그가 여전히 "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어떠한 정치적 혹은 사회적 입장을 취하던 그 속에는 "기질적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시적 호기심"이 내재하며, 한 평론가의 말처럼 "아직도 서성거리고 있는 김춘수"의 그 오랜 시의 역정의 일부분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 정소연 기자